















시론 02

Salutogenic(건강생성적) 건축은?

건축사 인터뷰 03

매일의 노력으로 다져가는 건축의 길 _ 이동욱 건축사 / ANX 건축사사무소

작품소개 04-06

리원 베이커리카페 _ 김동하 건축사 / 아뜰리에38 건축사사무소
"온휴재"(溫休在) - 따뜻한 쉼이 있는 집 _ 장필수 건축사 / 필 건축사사무소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생활SOC 신축공사 _ 정은미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뉴스 07-09

제2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도시문화제 개최
2026년 광주건축인의 밤 행사 개최
광주건축사회, 건축영화 상영회 개최
광양 구봉산 정상에 500m 높이 '파노라마 워크' 개장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4곳 선정
2026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배 친선골프대회 개최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대비 간담회
제27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20일부터 닷새간 개최
전북 전주시,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 내년 1월부터 시행

독자광장 10

책 소개 _ 안도 다다오 작품집: 빛의 색채
한 장의 사진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11-13

대상(공공 부문)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최우수상(민간 부문) '포레스톤'
우수상(민간 부문) '여운향'
우수상(민간 부문) '지곡당'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6.10월호(203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Salutogenic(건강생성적) 건축은?



문창호 논설위원

(주)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
mchangho55@gmail.com

- 1978
  서울대 건축과 졸업
- 1980
  동 대학원 공학석사
- 1989
  동 대학원 공학박사
- 1989-1995
  순천대학교 건축과 교수
- 1995-2021
  군산대학교 건축과 교수
- 2021-현재
  군산대학교 건축과 명예교수
- 2008-2010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
- 2009-현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 2014-2016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 2016-2022
  한국건축가협회 전북지회장
- 2024-현재
  전북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부위원장
- 2013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
- 2003
  완석루(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14
  난재루(전북건축문화상 우수상)
- 2019
  안향재(전북건축문화상 금상)
- 2023
  전북예총 하림예술상 본상

들어가는 말

2009년 싱가폴에서 열린 6차 WCDH(World Congress on Design and Health)에 참석 이후, 학회 창립자인 오랜 지인 Alan Dilani 교수의 초청으로, 지난 9월 말 말레이시아 쿠칭(Kuching)에서 개최된 15차 WCDH에 참석하였다. 주제는 "The Mission for Salutogenic Healthy Cities - Fostering Healthy Environments for Healthy People"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Salutogenic(* 우리말로는 '건강생성적'이라고 옮길 수 있으나, 아직 건축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번역어는 아니어서 이 글에서는 Salutogenic으로 표기하고자 한다)이다.

건축 및 도시, 보건의료, 지구환경 등 많은 발표에서 Salutogenic이라는 개념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졌다. 필자는 "An Integrated Smart Healing Environment Framework for Ward Remodeling: A Case Study of a Korean Public Hospital" 논문을 발표하였다. 비록 논문 제목에 Salutogenic 이란 단어는 없지만, 논문의 내용에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Salutogenic의 개념

Salutogenic은 라틴어 salus(건강)와 그리스어 genesis(기원·생성)를 결합한 말로, 의료사회학자인 Aaron Antonovsky가 발전시킨 Salutogenesis(건강생성론)에서 출발했다. 기존의 Pathogenic(질병발생론적) 접근이 "무엇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가?"를 묻는다면, Salutogenic 접근은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가?"를 질문한다.

예를 들면, 병원 건축 계획에서 감염 방지, 낙상 방지, 치료 효율성처럼 위험을 줄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공간 자체가 환자의 회복력, 안정감, 자율성, 사회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Salutogenic의 핵심적인 개념은 일관성의 감각(Sense of Coherence)인데, 이는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 환경을 이해할 수 있음), 관리 가능성(Manageability, 스스로 대응하고 조절할 수 있음) 및 의미성(Meaningfulness,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음)의 3가지로 구성된다.

건축/도시/지구에서의 적용

좋은 Salutogenic 건축의 조건은 첫째, 명확한 동선 계획, 공간의 위계 구현, 기능단위 별 색채 구분, 적절한 사인 도입, 랜드마크 설치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공간의 목적과 위치를 이해할 수 있고, 둘째, 실내의 온도/조명/블라인드 조절, 프라이버시 확보, 공간의 구분 등으로 사용자가 공간을 통제할 수 있으며, 셋째, 자연과의 직간접 접촉, 예술 작품 도입, 목재 같은 따뜻한 재료 적용, 사회적 교류 공간, 친숙하고 인간적인 공간 등의 실현을 통하여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 건축에서 환자가 길을 잃지 않고 병원 내외를 이동할 수 있고, 환자가 병실의 직접 조명과 블라인드를 조절할 수 있고 원내 취미활동에 참여하며, 창밖의 녹지를 바라보며 편안한 마음을 갖고 지내는 환경을 말한다.

건축에서 범위를 좀 넓혀서, Salutogenic 도시를 생각해 본다. 도시를 단순히 "질병·사고·공해를 줄이는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 회복력, 사회적 관계, 일상적 활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환경까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Salutogenic 도시의 조건은 첫째, 명확한 가로체계, 랜드마크, 도시공간 위계, 쉬운 길 찾기 등을 통하여 도시가 읽히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둘째, 보행 접근성, 편리한 대중교통, 근린 서비스, 안전, 무장애 환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선택이나 통제할 수 있으며, 셋째, 커뮤니티 공간, 역사·문화 보존, 자연, 지역 정체성 등을 통하여 장소에 대한 애착과 의미를 느껴야 한다. 즉, 좋은 Salutogenic 도시는 주민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쉽게 갈 수 있으며, 이곳에서 사는 것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도시"일 것이다. 특히,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 획일적인 대단지 주거, 부족한 보행·휴식 공간에 익숙해진 우리 도시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Salutogenic 개념을 건축과 도시에서 지구(planet) 차원으로 확장하면, 인간의 건강과 지구환경의 건강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에너지·물·자원 관리에 참여하며,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으로 인식해야 한다. 결국 Salutogenic 지구는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고,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환경을 돌볼 의미와 책임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https://www.pexels.com/photo/green-trees-and-high-rise-buildings-in-a-city-13916997/)

맺음말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르게 발전하였다. 주택, 병원, 학교, 교통시설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건축 기술과 시설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발전은 양적 공급, 경제성, 기능성, 효율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제는 건축과 도시가 얼마나 크고 새롭고 편리한가? 로만 평가하기보다, 그 공간이 사람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함께 물어야 할 시점이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지역 소멸,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은 건축이나 도시계획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상에서 걷고, 자연을 접하고, 서로 만나며, 자신이 사는 장소에 애착과 의미를 느끼게 하는 환경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병원은 환자의 회복을 돕고, 주거는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며, 도시는 사람과 자연,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Salutogenic 관점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질병이나 사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수준을 넘어 건축과 도시 자체가 건강과 회복력, 자율성,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거창한 기술이나 대규모 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쉬운 동선, 걷기 좋은 거리, 가까운 녹지, 자연채광, 작은 휴식 공간, 사용자의 선택권과 같은 일상적인 계획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결국 Salutogenic 건축과 도시가 지향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이나 유행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활을 조절하며, 그 장소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좋은 건축'을 평가하는 기준에 하나를 더할 때가 되었다. 그 건축과 도시가 사람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가이다. "Salutogenic"이라는 다소 낯선 단어가 앞으로 우리 건축과 도시에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기를 기대한다.

매일의 노력으로 다져가는 건축의 길

ANX 건축사사무소 이동욱 건축사와의 만남

건축문화사랑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동욱 건축사(전북)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ANX 건축사사무소 이동욱 건축사입니다. 서울 해안건축에서 실무를 익히다 2020년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2022년 2월 고향인 전주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뚜렷한 목표나 방향성을 잡는 게 어려웠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회사의 목표, 설계를 수주하는 방식, 사라져 버린 월급 등 다양한 고민들로만 가득해져 시간 나는 대로 건축사 선배님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선배님들을 만나고 보니 저마다의 사정과 속내, 그리고 치열함을 알게 되었고 저 또한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라는 마음가짐으로 눈앞의 일과 하고 싶던 일에 주저 없이 도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지만, 쉬지 않고 공모전과 프로젝트에 몰두한 덕분에 개업 후 1년 만에 값진 당선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일들을 이어나가며 소중한 선후배 및 건축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선배님의 권유로 합병까지 진행되어 목표했던 규모의 사무실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에이앤엑스(ANX)는 '본질을 꿰뚫는 시간, 가치를 짓는 건축'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Architectura PerspicaX'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이앤 엑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건물이 들어설 땅의 시간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 그 건축물이 오랫동안 영속될 미래의 시간까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작업에 임합니다.

회사 비전으로는 건축의 기본과 원칙을 탄탄히 다지는 내실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축에 관한 생각을 깊이 있게 나누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성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딸이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2시간 가까이 건축물 신축 상담을 나누셨습니다. 상담을 마치며 감사 인사와 함께 "상담비는 어디서 결제하면 되냐"라고 물으시더군요. 고마움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후에도 느끼는 것이 '전문가의 지식과 시간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나 기준'이 우리 분야에는 아직 명확히 자리 잡지 못했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활동하다 보니 공공발주 업무를 제외한 민간 고객의 절반 이상은 50~70대 어르신들입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업무 범위나 대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철거, 용도변경, 양성화,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 및 허가 등 세부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이 명확히 매뉴얼화되어 있다면, 건축주에게 신뢰성 있는 참고자료로 제시하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물론 사무소마다 수수료에는 편차가 있겠지만, 적어도 건축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설계 또는 업무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있을까요?

직장인 시절에는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성과가 목표였다면, 홀로서기를 한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나 자신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모두 하나의 이야기이자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지 못해 속상했던 적도 있었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어 허탈하면서도 안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매 순간 애정과 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부딪치다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진심을 알아봐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공모에 당선되어 참석한 프로젝트 회의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참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열정적이라며 먼저 다른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실제 약정매입 사업 2건을 계약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기적 같고 특별한 에피소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건축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혼자 외롭게 시작했던 사무실에 마음을 맞출 직원들이 생긴 이후로는 매일이 즐겁고 든든합니다. 앞으로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좋은 건축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10여 년의 실무 경력이 무색할 만큼, 처음 홀로서기를 했을 때의 막막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실무적인 조언은 물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많은 선배 건축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후배 건축사들에게 언제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든든하고 따뜻한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한 걸그룹의 성장 서사를 보며 매우 와닿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세상이 삭막해 보여도, 대중은 의외로 '노력'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건축을 이어나가는 모든 건축사님들의 노력이 환하게 빛을 발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래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무실 사옥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조감도



고창유아친화형 설계공모 조감도



약정매입 임대주택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리원 베이커리카페

김동하 건축사 / 아뜰리에38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림로 60-14 / Tel. 062-465-4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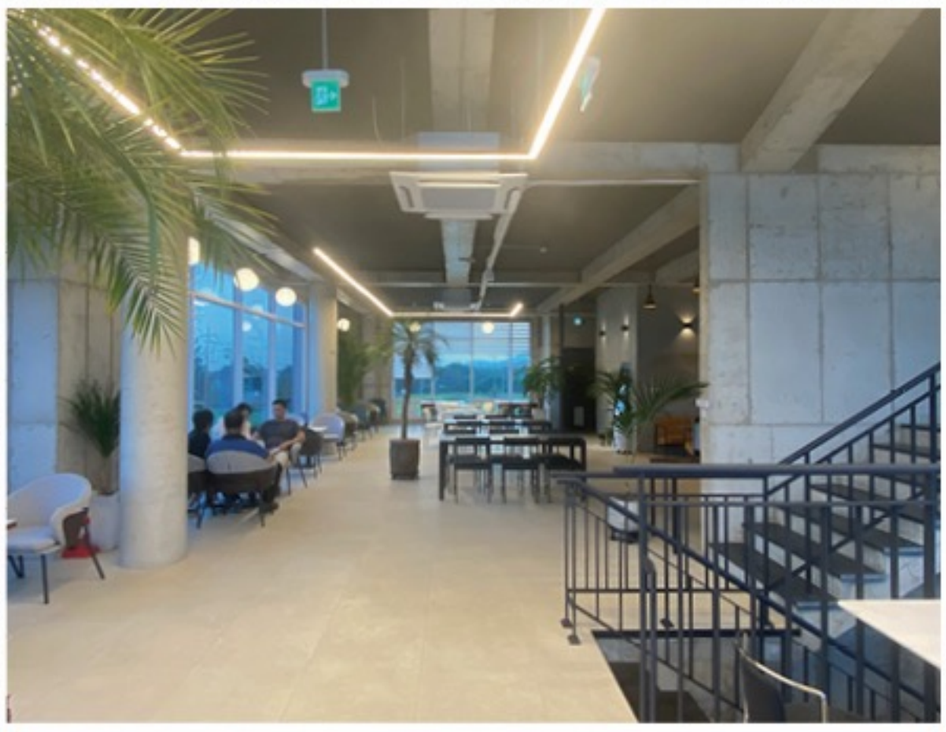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6 / 대지면적 : 956㎡ / 건축면적 : 185.29㎡ / 연면적 : 322.61㎡ / 건폐율 : 19.38%
용적률 : 33.75%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좁고 긴 대지 위에 순수한 형태의 매스를 계획한다. 주변에 푸르른 논과 자연이 어우러져, 길을 오가는 이들에게 이정표 같은 시선을 끌어오려는 의도였다.

마치 하나로 된 거대한 덩어리(monolithic block)를 염두하여 푸른색 배경에 하얀색 바탕을 남겨 놓은 작은 조각 케익을 꿈꾼다. 대지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부공간은 옥상 테라스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파노라마는 '논뷰'를 즐기기에 충분한 시선 흐름이 사용자에게 일상의 여유를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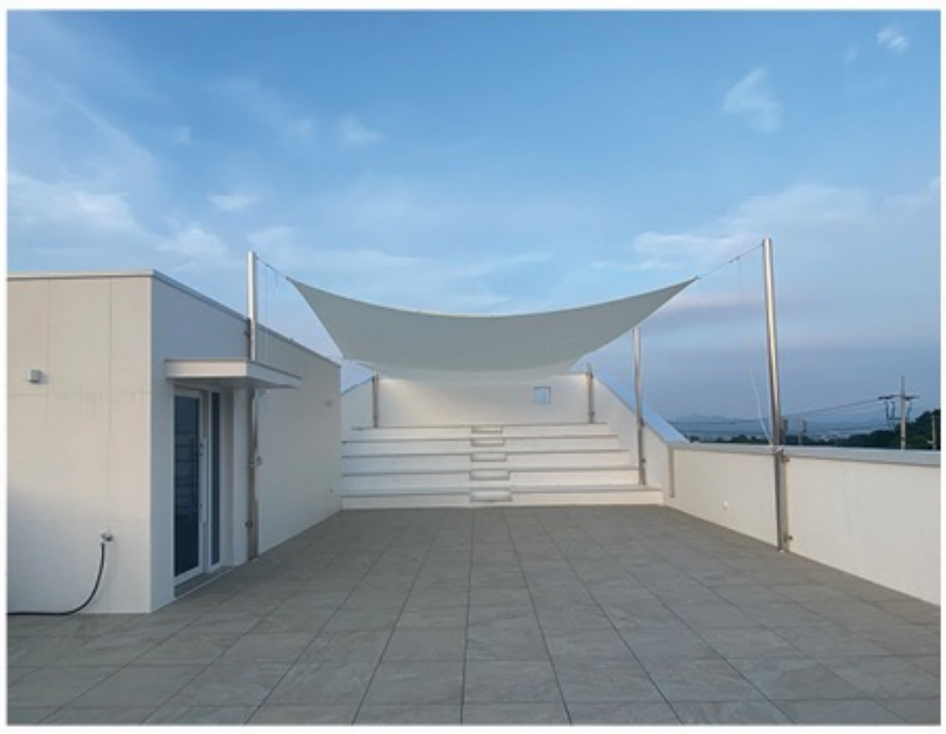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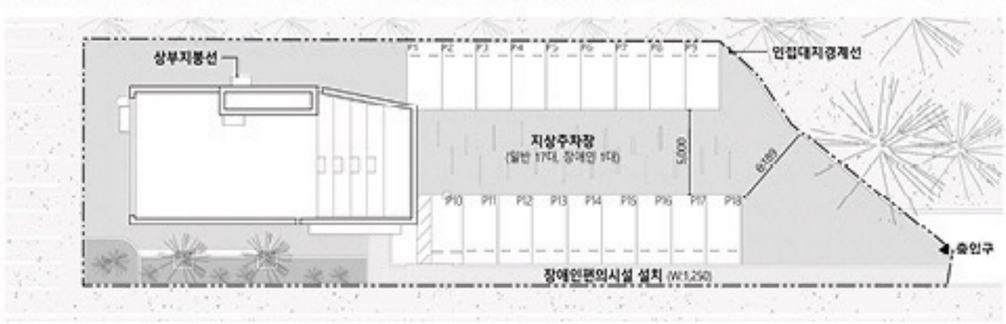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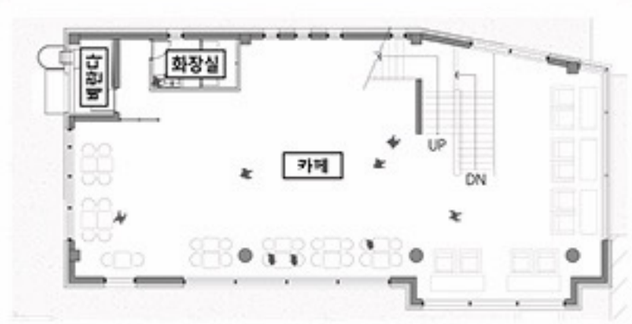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온휴재”(溫休在) – 따뜻한 쉼이 있는 집

장필수 건축사 / 필 건축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9, 301호 / Tel. 063-253-1406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임내길 56-17 / 대지면적 : 1340.0㎡ / 건축면적 : 254.6㎡ / 연면적 : 413.66㎡ / 건폐율 : 19.00%
용적률 : 27.96%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세라믹사이딩, 화강석, 징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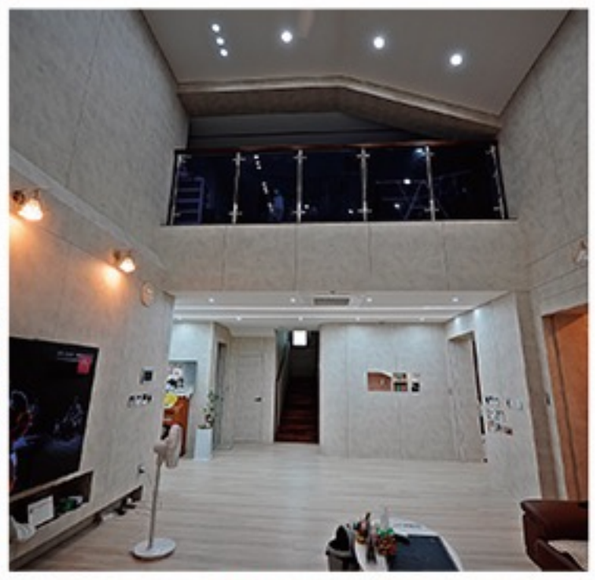
“온휴재”라는 이름을 통해 집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삶과 정신을 가꾸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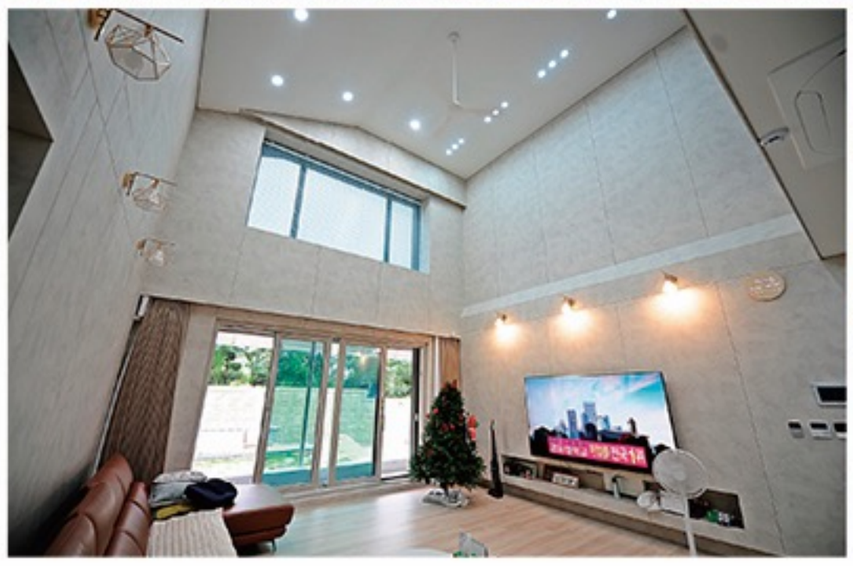
동서로 길고 서쪽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정형의 대지에 거실과 침실은 남향으로 배치하였고, 들판의 계절감을 만끽할 수 있는 2층 침실과 연결된 베란다를 계획하였다.

공간은 시원하고 넓게 구성하였고 큰 창문은 풍부한 자연채광과 시각적 확장성 확보와 더불어 거주공간이 베란다와 테라스로 연장되도록 계획하였다. 어린아이를 위해 2층 계단은 단너비 350mm, 단높이 150mm로 계획하였고, 넓은 마당은 아이에게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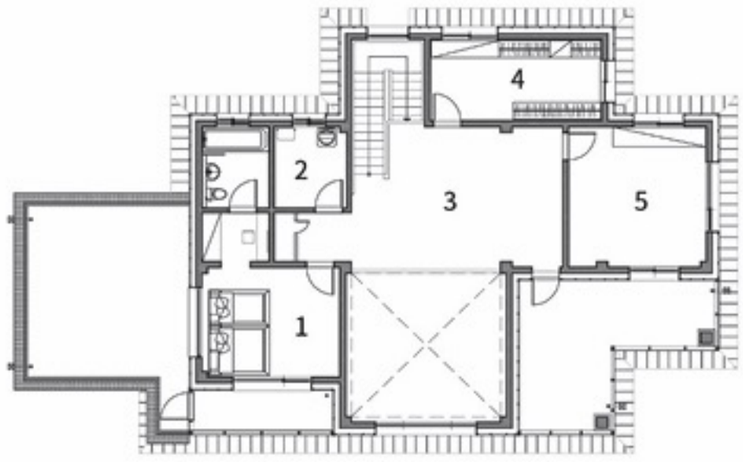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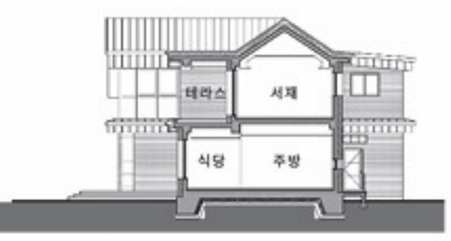
남측면도



서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전라남도건축사회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생활SOC 신축공사

정은미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12, 3층 302호 / Tel. 061-536-6446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북일면 신월리 189-3 외 2필지 / 대지면적 : 1,818㎡ / 건축면적 : 306.90㎡ / 연면적 : 243.72㎡
건폐율 : 16.88% / 용적률 : 13.41% / 규모 : 지상 1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치장벽돌마감(외벽), 스페니쉬 기와잇기(지붕)

본 사업은 작은 마을과 인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다.

이번에 신축된 건축물은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의 건축물로서 하나의 기능만 수행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공간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유연하게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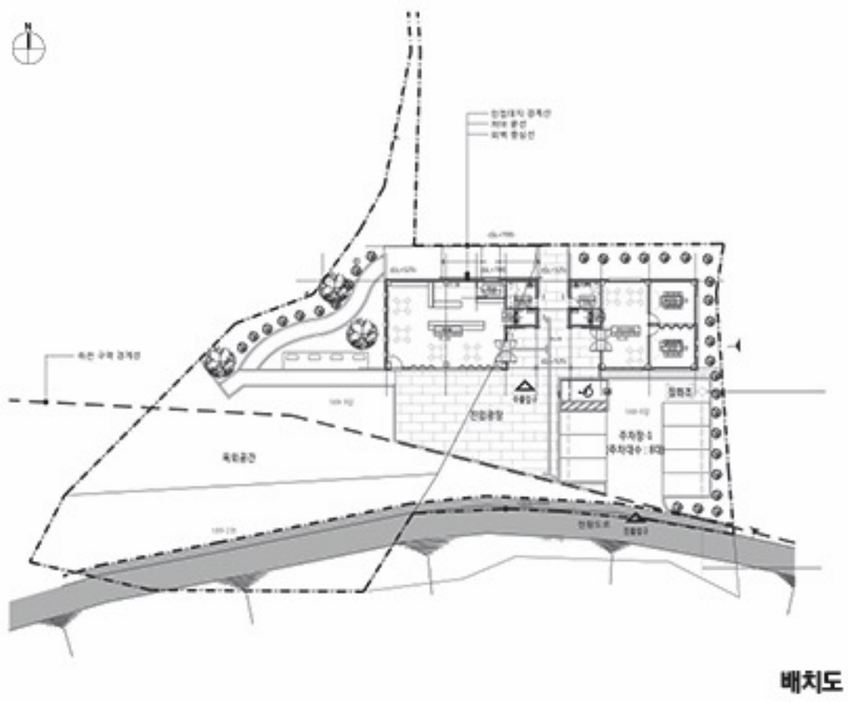
특히 주변에 건축물이 많지 않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외부공간으로 파고라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쉬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번 건물의 신축으로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만나고, 배우고,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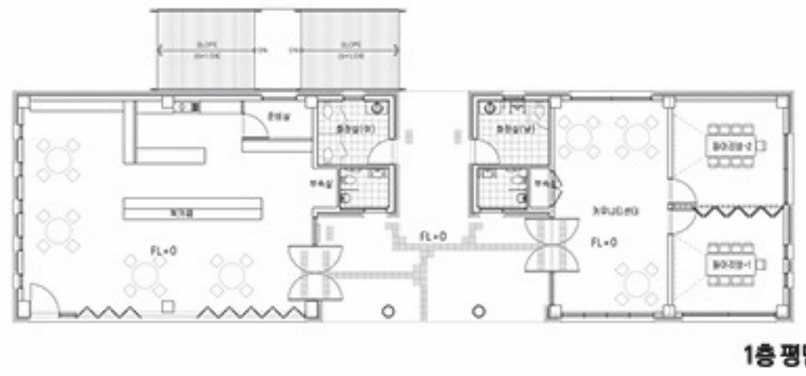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제2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도시문화제 개최

'통합의 도시, 건축의 미래를 열다' 주제로 다양한 건축작품 선보여



제2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도시문화제가 '통합의 도시, 건축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문화제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각각 추진해 온 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 건축문화 축제다. 건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와 건축 관련 교수,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행사장에서는 '2026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 소개를 비롯해 제30회 광주건축상 수상작품전, 광주건축사회 회원출품작품전, 타 시도 건축상 수상작품전,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품전, 광주·전남 건축전공학과 학생 우수작품전 등이 마련됐다. 다양한 건축작품과 모형이 전시돼 지역 건축문화의 성과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됐으며, 건축단체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12월 31일까지 전시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문화제는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두 지역이 함께한 건축도시문화제로, 지역 건축인들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통합 시대 건축문화의 미래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2026년 광주건축인의 밤 행사 개최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으로 이창율 건축사(GA·PM 건축사사무소) 추대



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10월 6일 어반브룩에서 '2026년 광주건축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건축인들이 함께 교류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GA·PM 건축사사무소 이창율 건축사를 '2026 자랑스러운 광주건축인'으로 추대했다. 이창율 건축사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와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설계 실무와 교육, 학술 및 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조선이공대학에서 8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도 20년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또한 제9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창립과 제준비위원장을 맡아 지역 건축문화 축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과 이사,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한국건축정책학회에서도 감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광주광역시 건축·도시공동위원회와 교통·광고 관련 심의위원으로 20년간 활동하고,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을 맡는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 분야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공로로 광주광역시장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장관상과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이창율 건축사의 추대를 축하하며 오랜 기간 쌓아 온 업적과 헌신을 되새기고 건축인 간 유대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광주건축사회, 건축영화 상영회 개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미스의 숨결을 따라서' 상영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0월 8일 오후 2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건축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영회는 제2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도시문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건축사회 회원과 교수,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상영작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미스의 숨결을 따라서'로, 참석자들은 영화를 통해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상영회를 통해 회원과 교수, 학생들이 건축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광산구청 시민광장, '2026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청사 외부 공간을 시민의 휴식·문화·소통 공간으로 전환



(사진 = 광산구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시민광장이 '2026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 공간으로 선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사)나무심는건축인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해 시상하는 상이다. 광산구는 9월 29일 시민광장에서 박홍근 (사)나무심는건축인 상임대표로부터 상장을 전달받았다. 시민광장은 행정기관 중심으로 활용되던 청사 외부 공간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소통 공간으로 전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는 청사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열린 청사'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야외광장의 화단과 유휴 부지를 잔디광장과 데크 쉼터 등으로 정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새롭게 조성한 공간을 '시민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했다. 이후 시민광장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머물며 휴식을 즐기는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각종 문화행사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열리며 시민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모두의 쉼터와 시민광장이 시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삼는 철학을 공간에 구현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통과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공간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벌점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 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광주건축사회 &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설계업무 관련 연구성과 공유로 회원 업무환경 개선 및 권익 향상 도모

광주건축사회는 건축사 설계업무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업무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추진해 온 연구성과를 전국 시도건축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지역 회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설계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건축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사항은 ▲설계의도 구현 민간분야 적용기준 정립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개선안 및 해설서 ▲건축사 설계업무 표준견적서 개발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활용 등이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받은 연구성과를 회원들의 실무에 적극 활용해 설계업무의 편의를 높이고, 합리적인 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업무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 골프동호회 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회원 간 친선과 교류를 도모해...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는 지난 12일 어등산 CC에서 '광주건축사 골프동호회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간 친선과 교류를 도모하고 회원사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해 골프동호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 후에는 만찬과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대회 결과를 함께 축하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대회가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광양 구봉산 정상에 500m 높이 '파노라마 워크' 개장

은빛 나선형 타워와 보행램프 갖춰...



전남 광양시 구봉산 정상에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파노라마 워크'가 지난 8일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장에 들어갔다. 이번에 들어선 파노라마 워크는 해발 473m 구봉산 정상에 높이 27m 규모로 조성되어 총높이가 500m에 이르는 입체형 조망 구조물이다.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누엘 몬테세린이 설계를 맡았으며 포스코가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했다. 구조물은 높이 23.5m의 은빛 나선형 타워와 총연장 300m 길이의 보행램프로 이루어져 있다. 방문객들은 보행로를 따라 오르며 지리산부터 남해, 여수, 고흥, 순천까지 광양만권 전체의 산과 바다, 도심 풍경을 360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다. 관람 및 이용 신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Y광양'을 통해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 방문객은 최대 5명까지, 단체는 6명 이상 50명까지 원하는 방문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광양시는 이번 파노라마 워크 개장을 통해 새로운 관람 수요를 창출하고 기존의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이 광양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다 폭넓게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4곳 선정

총 14개 작품이 접수... 디자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적 특성 등 종합적 평가


(사진 =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대상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4곳을 선정했다. 우수건축물 대상에는 나주 공산면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최우수상에는 구례 '포레스톤', 우수상에는 여수 '여운향'과 담양 '지곡당'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총 14개 작품이 접수돼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디자인과 기능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남도 의병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공간 구성과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건축공간에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레스톤은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돋보였으며, 여운향은 바닷가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해안 조망을 공간에 담아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곡당은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쉼터 조성과 무등산 조망과 잔디 마당을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구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수상작 관련 내용은 본지 11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배 친선골프대회 개최

회원 및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100여명 참석... 친선과 교류의 시간 마련



전라남도건축사회는 지난 9월 30일 장흥 JNJ CC에서 '2026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배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간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와 회원사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과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중식을 시작으로 회장 인사말, 기념촬영 및 시타, 골프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고, 지역을 넘어 건축사 간 소통과 교류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후에는 만찬과 시상식이 이어져 대회 결과를 함께 축하하고 참석자 간 화합을 다졌다. 이번 대회는 회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건축사회 간 교류를 이어가는 자리가 됐다.

BS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침하지반보강/복원
EcoSM 지반개량
마이크로파일
팽이기초공법
로타리파일(헬리컬)
강관압입파일
DFI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대비 간담회

제도 시행 준비사항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개선방안 의견 나눠



(사진 =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에 대비한 조례 제정 준비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서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 시의원들과 박광성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및 지역 건축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사항은 ▲조례 위임사항 및 주요 내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정의 실무사항 ▲시민 대상 홍보·안내 방안 ▲양성화 신청 과정 지원방안 등이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 '전주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기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연말 특별조치법 시행 전에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27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20일부터 닷새간 개최

한·중·일 교류작품, 도내등록문화유산 재조명전 등 다양한 건축작품 전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주관하는 '제27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가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문화제는 국내외 다양한 건축작품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건축작품 전시와 개막식·시상식, 세미나 등으로 꾸며진다. 국제회의장 2층 전시실에서는 건축문화상 수상작과 한·중·일 국제건축작품, 광주·경기·경남·대구 등 타 시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건축사 회원 출품작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지역의 건축작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보며 건축적 특성과 공간에 대한 해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과 시상식은 20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국악원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23일에는 학술발표와 건축포럼, 설계사례 발표로 구성된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건축 환경과 에너지, 공간 설계와 재생 등을 주제로 연구성과와 실무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작품 전시는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행사에 참여한 건축사 회원에게는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1시간이 인정된다. 한편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건축문화제는 자연을 아우르는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속 가능한 내일을 그려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건축문화제를 통해 도민 화합과 도시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 내년 1월부터 시행

연면적 1만㎡·10층 미만 건축 인허가 간소화

전북 전주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부서별로 반복되던 보완 요구를 한 차례로 줄이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핵심은 관계 부서가 각각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대신, 인허가 접수 이후 각 부서가 필요한 보완사항을 먼저 협의·취합해 한꺼번에 안내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부서의 보완이 끝난 뒤 협의부서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등 부서별로 보완과 재협의가 반복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전주시는 앞으로 관계 부서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보완사항을 한 번에 취합해 민원인에게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재보완과 재협의를 줄일 계획이다.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는 연면적 1만㎡ 미만, 10층 미만 건축 인허가 민원이다. 이를 위해 관계 부서별 회신 기한을 정하고 업무 체크리스트와 담당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부서 간 처리 기준도 통일한다. 시·구 건축부서와 전주지역건축사회 간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보완 사례와 애로사항도 공유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가 중요하다"라며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회원현황 : 479명 (2026. 10. 8. 기준)

- **입회**
  - 정재원 건축사 / 리마크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북구 첨단연신로 45 첨단리채비즈타워 A동 1207호
- **재입회**
  - 유방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YBKA / 전남광주시 동구 예술길 31-15, 4층 402호
- **변경(소재지)**
  - 노정만 건축사 / 선호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광산구 풍영정길 325, 3층
  - 김도석 건축사 / 미르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남구 효덕로 200, 3층
  - 박환영 건축사 / (주)대원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남구 효덕로 200, 3층
- **변경(상호)**
  - 엄유신 건축사 / (주)한테마 건축사사무소 → (주)세종 건축사사무소
- **결혼**
  - 한상훈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 / 딸 결혼 - 2026년 10월 3일(토)
  - 곽승동 건축사 / (주)엘.드림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2026년 10월 17일(토)
  - 전다정 건축사 / 아이케이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2026년 10월 18일(일)
  - 임성수 건축사 / 오름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10월 24일(토)
- **부고**
  - 정현수 건축사 / 금탑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10월 3일(토)

전남 회원동정

회원현황 : 491명 (2026. 10. 8. 기준)

- **입회**
  - 배성훈 건축사 / 이터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나주시 교육길 13, F동 404호
  - 김보라미 건축사 / 별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신안군 압해읍 원신장길 6, 103
- **변경(소재지)**
  - 이기성 건축사 / 이기성 건축사사무소 / 전남광주시 나주시 교육길 13, F동 4층 405호
- **결혼**
  - 주 창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건 / 본인 결혼 - 2026년 10월 3일(토)
- **부고**
  - 문경숙 건축사 / 문 건축사사무소 / 시부상 - 2026년 9월 5일(토)
  - 안호영 건축사 / (유)어반후드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2026년 10월 7일(수)

전북 회원동정

회원현황 : 533명 (2026. 10. 8. 기준)

- **입회**
  - 서진희 건축사 / 이오공간 건축사사무소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73, 2층
  - 최요한 건축사 / 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3-1, 2층
- **결혼**
  - 황공신 건축사 / 홍익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2026년 9월 19일(토)
- **부고**
  - 송미영 건축사 / 디에스 건축사사무소 / 시모상 - 2026년 9월 11일(금)
  - 조창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앤엑스 / 빙모상 - 2026년 9월 27일(일)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안도 다다오작품집: 빛의 색채

안도 다다오, 리처드 파레, 톰 헤네건 / 유엑스리뷰 / 2025. 9. 27.



건축에서 빛은 공간을 밝히는 기능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공간의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공간이라도 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양,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만들어 낸다. 〈안도 다다오 작품집: 빛의 색채〉는 이러한 빛의 가능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해 온 안도 다다오의 작품을 통해 건축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이 책에는 1973년부터 1999년까지의 작품 중 건축가가 직접 선정한 27개의 프로젝트가 담겨 있으며, 사진과 도면, 드로잉을 통해 그의 건축 철학과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빛과 콘크리트, 물과 벽처럼 일상적인 건축 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을 살펴보면 화려한 장식이나 복잡한 형태보다 단순한 기하학적 구성과 재료의 본질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의 작품에서 노출콘크리트는 단순히 구조를 이루는 재료가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매끄러운 콘크리트 벽은 빛을 받아들이고 그림자를 드러내며, 주변의 자연과 대비를 이루면서 공간에 고유한 성격을 부여한다. 특히 벽과 벽 사이의 틈, 천장의 개구부,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은 공간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건축의 완성도는 얼마나 많은 요소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각각의 요소를 얼마나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조화롭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서 벽이 갖는 의미도 흥미로웠다. 벽은 일반적으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공간을 나누는 요소로 이해되지만, 그의 작품에서 벽은 공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된다. 벽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시야가 제한되기도 하고, 특정한 풍경이 드러나기도 한다. 때로는 자연과 건축을 분리하는 듯 보이지만, 그 사이에 만들어진 틈과 이동 경로를 통해 두 영역을 새롭게 연결한다. 이러한 구성은 공간을 경험하는 순서와 시선을 세심하게 계획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건축물의 평면과 단면을 계획할 때 벽을 단순히 공간을 구획하는 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과 시선,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자연과 건축이 관계를 맺는 방식 역시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안도 다다오의 작품에서 자연은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에 머무르지 않는다. 빛과 물, 바다와 지형은 건축의 구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건축물 안팎에서 경험하는 공간의 일부가 된다. 특히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에서는 바다를 향해 열린 공간과 경사진 길, 계단식 테라스가 서로 연결되면서 건축과 자연이 하나의 풍경을 형성한다. 방문객은 단순히 전시 공간을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물 안에서 바다와 하늘, 시간의 흐름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축이 자연을 극복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도 구현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안도 다다오의 작품은 단순한 형태 안에도 구체적인 의도와 치밀한 공간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적은 요소를 사용하면서도 깊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각 요소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내가 제안하는 공간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형태와 구성을 가져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이 책은 주요 작품을 소개하는 동시에 건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 내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풍부한 사진과 도면은 완성된 건축물의 모습을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공간의 구조와 재료, 빛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을 읽고 나니 건축의 아름다움은 독특한 형태나 시각적인 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하나의 의도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더욱 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빛은 벽을 드러내고, 벽은 공간을 구분하면서도 풍경을 연결하며, 자연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을 만들어 낸다. 결국 건축은 각각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일이 아니라 그 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맺도록 계획하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 설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결과물의 형태에만 집중하기보다 공간을 이루는 요소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들이 모여 어떠한 경험을 만들어 내는지 깊이 고민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건축의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설계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의미 있는 책이었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본태박물관 명상의 방 (Ando Tadao, 2012)

제주특별자치도 / 2026년 6월 12일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 집 인 임현정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허만수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전준홍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 062-521-0026 / gjkira@empas.com)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이 외세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과거 선대의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들도 위대한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용기와 신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건축"을 제안했다. 역사공원 내에 위치한 박물관은 관람객이 주차장에서 내려서 박물관으로 걸어오기까지 지형과 숲에 의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니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의병의 정신은 박물관의 외관에 있지 않고, 나무에 있고, 들판에 있고, 바람에 있고, 하늘에 있다. 박물관은 주위의 영혼을 지닌 것들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 또한 3만여 개의 픽셀로 구성된 선형 파사드는 굽이치는 영산강과 마주하여 수많은 의병들을 상징하며, 바람에 반응하여 항상 움직이는 입면에서 포기하지 않는 의병들의 정신과 결속력을 느낄 수 있다.

2026년 대상(공공 부문)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설계자 : 박노욱 / 건축학동건축사사무소(주)
주현제 / 국립강원대학교
시공자 : 김수홍 / 아주건설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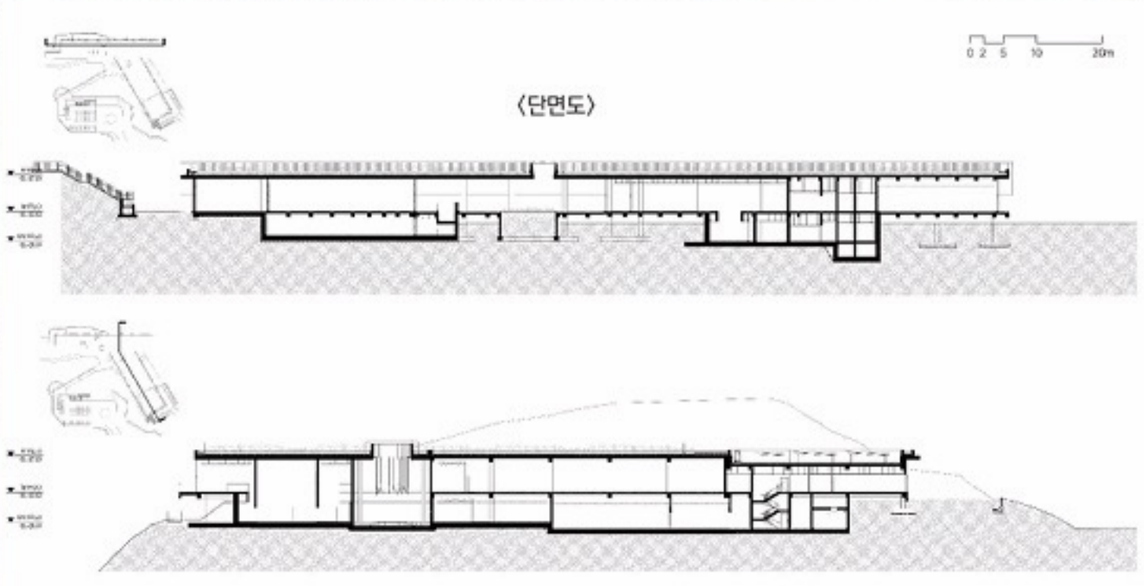












벽체가 낮은 성벽처럼 자연의 요소와 포용하는 극적인 건축공간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산면 의병박물관길 1 / 대지면적 : 22,396㎡
연면적 : 7,320.52㎡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 주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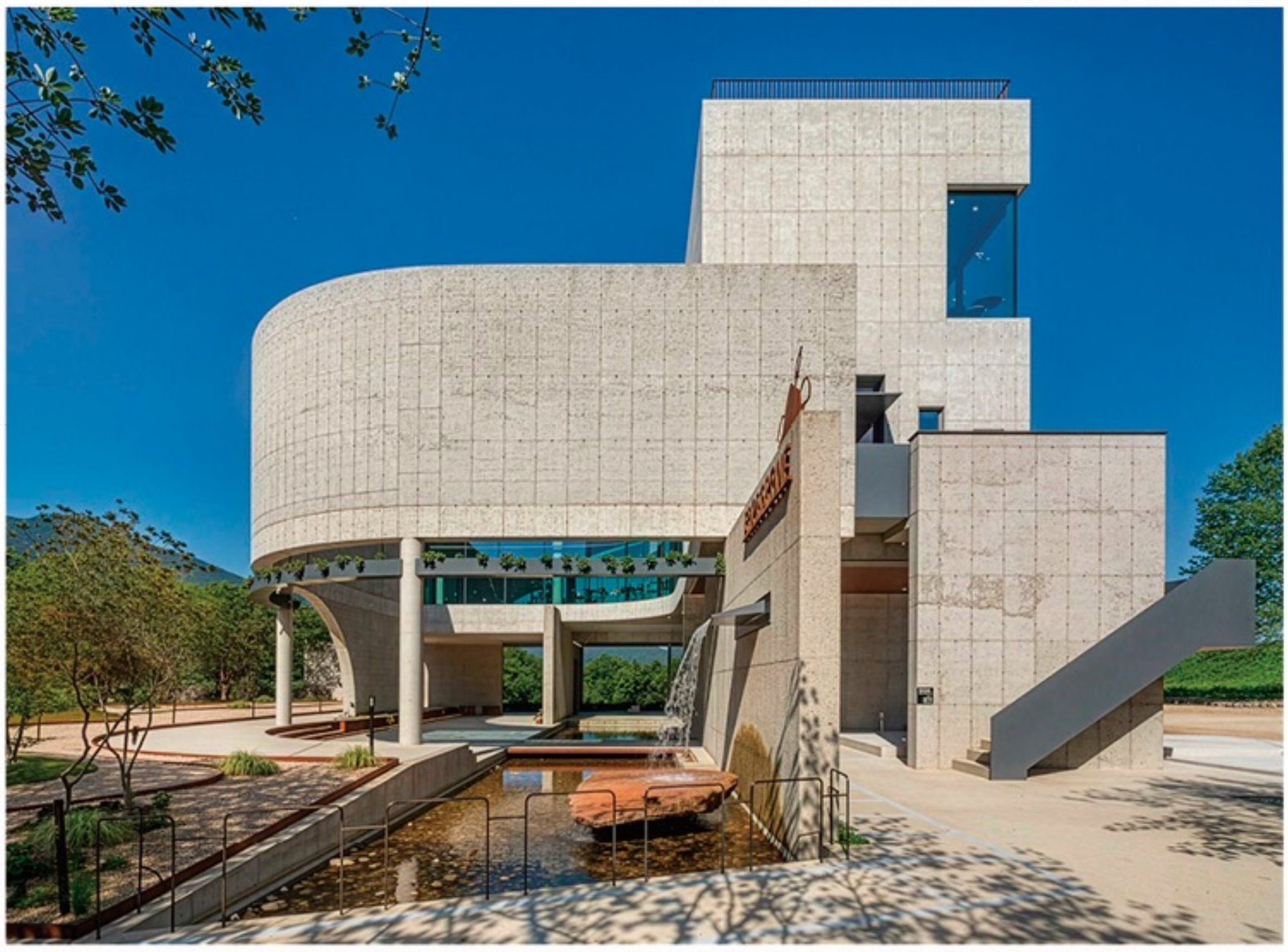
포레스톤 카페는 자연 속에서 머무름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건축주는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였으며, 설계자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포레스톤 카페는 재료가 가진 본연의 물성과 질감을 공간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였다. 주요 구조체와 마감은 노출콘크리트를 중심으로 계획하여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재료 자체가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단열 공법을 적용하여 실내외 모두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구현함으로써 건축물 전체에 일관된 재료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최소화하여 이용자가 건축과 자연을 하나의 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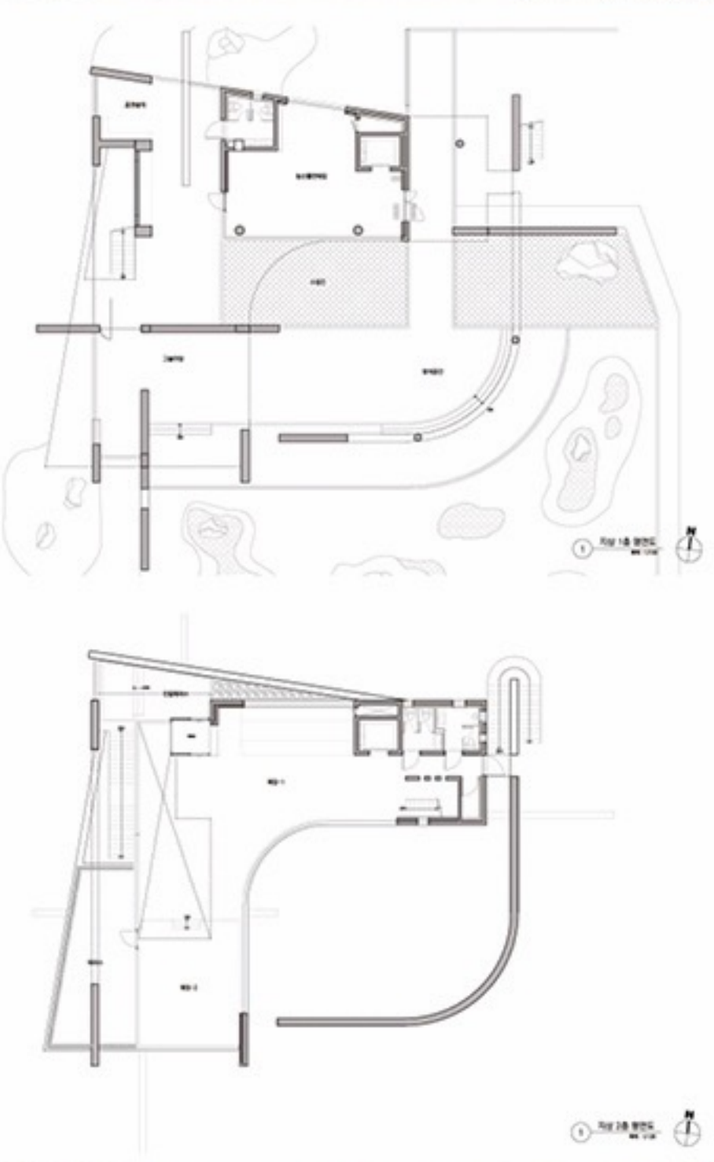
2026년 최우수상(민간 부문)
'포레스톤'

설계자 : 김창균 / (주)유타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박지남 / (주)지아택건설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22-2 외 1필지 / 대지면적 : 1,604㎡ / 연면적 : 686.75㎡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수상작

2026년 우수상(민간 부문)
‘여운향’

설계자 : 조윤경 / 짓다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현해용 / (주)우은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512 외 1필지 / 대지면적 : 913㎡
연면적 : (A)262.2㎡, (B)209.83㎡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6년 우수상(민간 부문)
‘지곡당’

설계자 : 조정화 / 건축사사무소 studio zozo
시공자 : 자가시공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곡리 224 / 대지면적 : 1,015㎡ / 연면적 : 206.51㎡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